

한중일 정상회담(09.04.12) 주요내용

이명박 대통령은 태국 파타야에서 개최된 APEC에서 한중일 정상회의에 참석, 이미 독립적으로 1회 한중일 정상회담(08.12.13) 개최하고 있으나 한중일 협력 10주년(2009년)을 맞이하여 3국간 협력 체제 지속을 재확인했다.

□ 한중일 정상회담 개최

- 이명박 대통령은 태국 파타야에서 개최된 APEC에서 한중일 정상회의에 참석, 중국과 일본에서는 각각 원자바오(溫家寶) 총리와 아소 다로(麻生 太郎) 총리가 참석
- 한중일 정상들은 이미 독립적으로 1회 한중일 정상회담(08.12.13) 개최하고 있으나 한중일 협력 10주년(2009년)을 맞이하여 이번 정상회의에서 3국간 협력 체제 지속을 재확인
- * 한·중·일 정상회의는 지난 1999년부터 매년 ASEAN+3 정상회의를 계기로 개최되어 왔음

□ 협의 내용

- 한중일 협력 체제를 구축하는데 합의
- 3국 정상은 2009년 12월에 개최될 예정인 제2회 한중일 정상회담에서 의미있는 의견교환이 중요하다고 발언
- 중국측은 북핵 문제로 UN 안보회의에서 의장 성명을 희망, 한중일 정상은 북핵 문제에 대해 일치한 태도로 대응해야 한다는 의견으로 합의

□ 성과

- 3국 정상은 약 30분간의 짧은 시간에 협력 체제 강화에 대해 재확인
 - 구체적 논의는 제2회 한중일 정상회담(09.12.13)에서 하고 있음

<참고자료>

외무성 <http://www.mofa.go.jp/>